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주형 사회적경제
중단기 계획 '윤곽'

전주매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음 6월 1일) 제25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미세먼지 줄어 전북 하늘 맑아졌다

도 계절관리제 등 효과… 평균농도 전국 5위로 개선
하반기 저감대책 지속 추진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2024) 추진과 계절 관리제(12월~3월) 시행 효과 등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의 2018~2019년 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6월말 기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시군별 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의 경우 37.5% 개선을, 부안군이 36.1% 개선율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읍시(14.8%)와 장수군(16%)은 낮은 개선율을 보여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는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로 6개 분야 30개 사업(1조3,173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적기 시행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세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인 농업진재물 등 생물성 연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84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 농업진재물 불법소각 등 상시 단속중에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건설공사장 1,4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세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대처, 6월말 기준 764개소를 점검해 50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더불어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6월말 기준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 8,373대 지원, 친환경자동차 893대를 지원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상반기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점진적으로 개선, 전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국 2위에서 5위로 개선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며 "하반기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취약계층에 사랑을 나눠요'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은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로비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 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에 전달할 삼계탕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선물함에 담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전북도, 사회적 약자위한 '복지숲' 공모

복지시설 등 대상 24일까지

전북도가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 및 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복지숲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도 자체심사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심사(8~9월)를 거쳐 10월중 최종선정(산림청)된다. 2021년 공모계획은 복지시설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등 2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158억원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1억원에서 최고 2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6억원에서 최대 20억원 까지 지원한다. 응모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를 작성, 오는 24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하면되고 자세한 응모 방법과 지원조건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https://fowi.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 정서 안정과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한 녹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과 나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도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전주, 익산, 완주, 남원) 와 무장애 나눔길 1개소(부안)를 조성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한옥마을서 "한판 놀아보세"

24~26일 생활 속 전통놀이 야외행사 등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전통놀이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통놀이 문화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2020 전통놀이문화포럼 및 생활 속 전통놀이 야외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전통놀이, 현재에서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20 전통놀이문화포럼'에서는 국내·외 전통놀이 분야 교수와 콘텐츠 제작 전문가, 종사자 등이 참여해 전통놀이의 대중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전통놀이 문화포럼은 학술포럼과 열린포럼으로 진행된다. 학술포럼은 전통놀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데 모여 전통놀이의 기초연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열린포럼은 사전신청을 통해 국내외 놀이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일반인들이 함께 우리 전통놀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3일 내내 전주향교와 완판본문화관 일대에서는 '전통놀이 판을 깔다'를 주제로 생활 속 전통놀이 야외행사가 펼쳐진다.

야외행사의 경우 사방치기, 투호,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에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가미해 2030세대와 가족 단위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버스킹 공연과 수공예 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김윤상 기자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전북도, 배수지 등 합동 점검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으로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도내 정수장 내 침전지, 배수지 등에 면밀한 시설점검을 실시, 철저한 수질 관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소의 정수장 및 취수장, 5천톤 이상 배수지 27개소 등에 대하여 K-water 수도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수원 오염행위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실태, 배수지 청소 및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 수질 이상 발견 시 전문가를 별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수도시설(779개소/4만 8,600명)에 대해서는 지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취수원 오염원 사전 정비, 관정 및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학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완료하고 일시적 해결방안이 아닌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설은 202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은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북은 활성탄이 아닌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돼 현재까지 도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전북도는 도민 불안 해소와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질저하, 집중강우로 인한 상류 오염원 발생 증가 등 수질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상수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